

영어교육 26호
1983년 8월

英語學習 段階의 誤用問題

俞 鎭 衡
(梨花女子大學校)

I. 序

幼兒의 모국어 습득과정과 成人의 외국어 학습과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 첫째 이유는 유아의 인식능력의 발달은 언어능력의 발달과 병행하는 반면에 成人은 이미 인식기능이 구비되어 있고, 둘째로는 성인은 이미 모국어의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로는 양자의 학습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외국어의 학습과정에서 검출되는 많은 誤用은 유아가 모국어 습득시에 나타내는 그것과 유사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외국어의 규칙을 나름대로 조작해 나아가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아의 모국어(이하 NL) 습득과정은 단지 모방의 과정이 아닌 창조적인 과정이니 유아의 언어에서는 흔히 성인시범자가 제공하는 표현에서 이탈되는 독특한 표현체계가 체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하여 유아의 NL 습득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略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NL 언어자료에 접하게 되면 유아는 NL에 대한 규칙, 즉 가설을 세울 정보를 抽出하여 그 가설을 시험하고 그 시험 결과의 feedback 여하에 따라 가설을 확인 또는 시정해 나아간다. 그런데 이 feedback을 제공해 주는 요인은 학습자의 output에 대한 NL 화자의 반응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이하 FL) 학습자의 학습활동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므로 여러 학습과정에서 검출되는 학습자 특유의 중간문법, 즉 interlanguage 현상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여러 연구결과의 경향인 듯하다. NL 습득이나 FL 학습의 과정을 zero structure에서 full structure 에로의 점진적 발전과정으로 볼 때에 NL 습득과 FL 학

* 本論文은 1982年度 韓國文化 研究院 研究費 지급에 의한 것임.

습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주의 언어학습이론에 입각한 生得的(innate) 언어관을 토대로 하여 생성문법적 언어습득론을 주장한 McNeil (1966)의 유아의 NL 습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는 언어의 보편적 특성(linguistic universals)을 지니고 있으며 이 특성은 生得的인 것으로서 문법의 습득 순서를 지배하고 제한한다. (2) 기본적 문법관계 즉 문법적 주어, 술어 등의 기본개념은 생득적이다. (3) 유아는 의미에 가까운 기본연쇄(basic string)에 따라 말을 하게되며 음과 의미의 관계는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rigid)하다. (4) 부모의 역할은 유아 언어발달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뿐이다. 문법항목의 정착은 연습에 의하는 것이 아닌 지적 활동의 결과이다. (5) 성인이 유아에게 제공해 주는 언어자료는 모방을 위한 model이 아니고 단지 유아 자신이 創出해 내는 문법가설의 검증 자료에 불과하다. 즉 유아는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문법규칙을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다. 예로 들자면 No dog→That no dog→That's not dog→That's not a dog. 와 같은 습득과정을 밟게된다고 한다.

McNeil의 이런 주장 이면에는 인가는 생리적인 언어의 원형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은 일정한 성장기에 이르면 외부의 언어적 자극에 접하며 발달된다는 전체적 가설이 있는 것이다. 즉 언어는 습득(acquire) 또는 학습(learn)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리적 능력과 함께 발달(develope)된다는 이론은 자극과 그 반응에 의하여 언어를 습득한다는 학습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언어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cognition)의 발달과 병행하여 발달한다는 견해가 있으니 McNeil에 의하면 언어습득은 일반적 인식능력(general cognitive abilities)에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언어습득의 기본원리를 참고로 하면서 외국어 교육원리의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언어발달 심리이론은 외국어 학습이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NL 습득과정이나 FL 학습과정을 zero structure에서 full structure로의 점진적 발전과정으로 볼 때에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예기할 수 있다. 모국어로서의 영어 습득과정과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과정의 상관관계 여부에 유의하면서 문헌을 통해서 본 문제점을 제기하고, 영어 학습시에 나타나는 발전적 오류(developmental errors)의 해석 및 처리문제를 다루어보자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발음 문제

音調형(intonation)이 분절음(segmentals)에 선행하여 습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Rise-fall 음조형은 생후 2개월에, 명령음조는 10개월 후, 그리고 의문음조는 2년 만에 습득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Lieberman(1968)은 9개월 된 유아는 의문음조에 대한 동작적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보고를 하고 있다. Fries(1945)도 외국어 학습시에 음조의 중성요소를 강조하여 이것이 분절음소에 선행하여 학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ntrary to our common and traditional views, experience has shown that the covering intonation patterns are mo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in rapid conversation, than are the exact phonetic qualities of the separate sound segments. If the pitch sequences are right, the foreign speaker will be more likely to be easily understood, even if the individual sound units are incorrect, than he will be if the individual sound units are nearly correct and the intonation contours are wrong (p. 23).

요구, 의문, 명령 등의 음조는 어휘나 구문의 습득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습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음조는 보편성이 높은 것이어서 보편성이 높은 것일수록 그 발달시기도 빠른 것이다. 즉 초분절음은 분절음의 틀(frame)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이 비록 질적인 차이는 있으나 같은 과정으로 발달된다고 하면 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영어 특유의 음조를 학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원어인(native speaker)의 발음에 접할 기회를 초기 학습단계에서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리적 견지에서 볼 때에 언어습득은 일종의 감각운동학습(sensory motor learning)이다. 즉, 우선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음의 특징이 이해되고 실제 발음운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학습자는 음의 흐름에 숙달되어야 한다. 종래의 발음지도 절차는 조음음성학적 견지에서 발음기관의 근육운동 연습에 치중해 온 느낌이다.

유아발음의 체계화를 시도한 Jakobson(1968, 1971)에 의하면 유아의 발음은 어느 언어에나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음에서 시작하여 한 언어 특유의 음으로 계층을 이루어 발달되고, 極化의 원리(polarity principle) 혹은 최대대립의 원리(principle of maximal contrast)에 바탕을 두고, 二項對立的(binary contrast)

으로 발달되어 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을 계기로 phonological universals가 연구되고 이어서 생성음운론의 기초가 되는 示差의 特性論(distinctive feature theory)이 확립되게 된다.

Jakobson의 이런 원리는 종합적으로 유아의 발음 발달에서 그 근거가 나타나게 된다. 즉 발음이 가장 용이하다는 최적자음(optimal consonants)인 /p, m/과 최적모음 /a/의 결합에서 유아의 'mama' 'papa'가 조기에 나타나게 된다. 자음 /p/에 이어서 /t/로 발달되고 모음 /a/는 /u/, /i/로 발달이 되니 전모음 및 후모음이 대립을 이루는 까닭이다.

Menyuk(1971: Chapt. 3)는 더 상세히 유아의 자음 숙달 순서를 밝히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b, m, n, f, h, w/ (3세)
- (2) /p, d, s, k, ŋ, l/ (4세)
- (3) /t, v, -s, z, š, ž/ (5세)
- (4) /č, v/ (5 $\frac{1}{2}$ 세)
- (5) /j, θ, ð/ (6세)

Smith(1973)는 다음과 같이 prototype에서 subtype로의 발달을 그의 사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

- (a) /s/ < /s/ /θ/ (b) /l/ < /l/ /r/ (c) /t/ < /t/ /θ/ (d) /θ/ < /s/ /z/ (e) /s/ < /s/ /f/
- (f) /d/ < /d/ /ð/ (g) /ts/ < /s/ /t/ (h) /w/ < /w/ /r/

이상에서 보아 온 分節音 발달경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아의 청각각능력(acoustic perceptibility)은 예리하다. 예로 month와 mouse 구별이 되지 않는 단계에 있어서도 양자의 +stridency를 인지한다고 한다. (2) 일반적인 prototype에서 더 세분되는 subtype로 점차로 발전되어 간다. (3) 대립성이 높은 음(예, /p/:/t/)은 조기에 발달되고 반대로 대립성이 낮은 음(예, 구강의 중앙부에서 조음되는 /r, dʒ/ 등)은 습득이 늦어진다. (4) 조음시에 근육의 긴장도가 심한 음은(예, /s, i/) 그 습득이 비교적 늦어진다.

Jakob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아의 발음발달은 보편성이 높은 음으로 시작되고 생리 및 지각의 발달에 상응하여 향상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영어교육에 이용될 수는 없을 것인가? 외국어 학습시에는 이미 모국어의 습성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발달을 완전히 동일한 과정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 역시 지각, 생리, 인식면에서 새로운 언어체계를 심어가는 과정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학습에 관계되는 과정은 모국어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발음발달의 과정이 영어 학습의 과정에 그 발전적 난이도를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학교 교과서의 단어 및 敎材배열에 있어서 발음의 難易度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처음부터 발음의 완전주의를 요구하는 태도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언어습득은 점진적인 것이므로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어 학습시의 문제점은 모국어와 영어 사이의 차이점에서 기인되는 한편, 영어 규칙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정도 및 生理, 知覺의 발달의 점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誤用分析(error analysis) 연구가 빈번히 행해져 왔고 이에 대하여는 장을 따로 하여 논하기로 한다.

Flege는 Saudi Arabia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의 有·無聲 폐쇄음의 발음학습에서 학습자 나름으로 체제화된 독특한 발음방법으로 학습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는 데 이것은 즉 유아의 NL 발음학습 과정과 유사한 것이다 :

If examined in sufficient detail, however, there is some indication that a learner's L_2 pronunciation can be characterized as the output of relatively stable phonetic system which is distinct from that of either L_1 or L_2 , that is, as an "interlanguage" (p. 119).

Flege는 그의 결론에서 영어 폐쇄음의 발음학습은 영어의 모국어 습득자나 외국어 학습자 간에 공통적인 方略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

Thus, adult foreign language learners appear to resemble child learners of a first language, at least in regard to their general pattern of phonetic learning (p. 133).

Ⅲ. 의미의 習得

유아의 의미 습득과정에서도 음성 습득과정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니 대략 다음과 같은 습득 계층을 예상할 수 있다 :

- (1) 감각적, 구상적 의미 → 비감각적 추상적 의미
- (2) 감정적 의미 → 主知的 의미

(3) 일반적 의미 특성 → 특수적 의미 특성

Menyuk(1969)에 의하면 유아의 의미 발달은 일반적 의미특성에서 특수적인 것으로의 의미 分化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See 가 습득되고 나서 look, watch, stare 등이 학습이 된다고 하는 데 의미특성은 인식(cogni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인식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는 see, look, watch, stare의 용법에 혼동이 생기는 수가 있다(※ See that beautiful girl!). 이들의 의미특성의 대립은 다음과 같이 圖示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특성의 대립을 의식시키는 것이 단어학습에 유효할 것이다 :

	see	look	watch	stare
의 지	-	+	+	+
계 속	+	-	+	+
감 정	-	-	-	+

의미 대립의 정도가 심할수록 습득이 빠른 예로서 in front of와 behind의 습득이 종립적 특성을 지닌 beside의 습득에 선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미의 대립성을 고려하는 지도가 효과가 있음은 영어교사로서 우리의 다년 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Sweet, hard, cold, crooked 등의 단어는 인간과 물체 양면에 적용되는 이중 기능(double function)을 지닌 어휘인 데 그 사용순서로는 6세까지의 어린이는 물체에 한정되어 나타났고 9세 이후에서야 비로소 인간과 물체 양면에 쓰이게 됐다는 Menyuk(1971)의 연구보고가 있다. 이것은 구체적, 감각적 의미에서 비감각적, 추상적 의미로의 발달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 지도에 있어서는 의미특성의 종류를 고려한 단계적 지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언어행위의 기본기능이 인간상호간의 감정전달 및 의사소통에 있고 유아는 그가 접하는 주변 인물과의 대화에 의해서 언어 및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 따라서 유아의 對人 대화욕망은 초기에서부터 강하게 나타난다. 이미 지적했듯이 명령, 요구, 거절 등의 의사전달은 몸짓 또는 음조를 통하여 분절음이나 어휘습득 이전에 유아에게서 나타난다. Jespersen(1922: p. 136)은 유아의 언어에서 肯定的 표현이 초기에 정착되는 것은 강한 감정을 노출시킬 수 있는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명령, 요구, 부정, 의문 등의 감동적(emotive)인 표현일수록 초기에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영어교재 배열이 구문이나 기능위주로 고려되어 왔고 따라서 학습자의 인간적 흥미를 도외시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IV. 문법구조의 습득

1960년대에 이르러 유아의 발전적인 發話분석이 종종 있었으니, 발화에 나타나는 語類(word classes) 즉 品詞가 기타의 언어형식과 결합하는 내용의 분석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유아는 그가 접하는 성인들의 발화를 듣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추출하여 문법을 습득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주류적인 견해이었다. 즉 文中에 나타나는 일정한 형식은 일정한 위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 형식이 語類와 결합되는 型을 습득해 나아가는 것이 유아의 문법 습득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Braine(1963)의 pivot classes+open classes 분석이 나타난 것도 이때였다. 그의 녹음 자료에 다음과 같은 어린이의 발화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all broke	more car	Here brick	Here more truck
all clean	more fish	Here chairs	Here more block
all done	more high	Here truck	There more car

이 자료에서 all, more, here, there, here more, there more 등은 軸類(pivot classes)이며 여기에 broke, clean, truck 등의 각종의 開放語類(open word classes)가 결합되어서 發話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圖示하면 S→P+O가 된다. 즉 軸類는 한정되어 있고 軸 다음의 틀(frame)을 채우는 語類는 다양하여 일종의 substitution 문형연습을 이룬다. 나아가서 more car, here truck에서 here more truck, there more car로의 expansion 文型연습으로 전개되어 간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자료에서 ※more here truck의 어순이 검출되지 않은 점인데 이것은 유아 언어의 엄격한 규칙성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McNeil(1966)은 Adam car, Mommy soup, Urler suitcase 등의 발화를 S→N+N로 공식화하고 이 공식은 어린이가 발화에 있어서 흔히 발생한다고(productive) 말하고 있다.

Braine 이나 McNeil의 주장대로 언어발전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 語 결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구조관계를 밝힐 수는 없는 것이다. 유아의 發話內容은 거기에 수반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유아의 초기 發話에서 나타나는 1~2 語로 된 구문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1세 유아의 발화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mama'는 그 발화상황에 따라서 Mama, pick me up. Mama, feed me, Mama, hold me. 등의 여러 요구를 뜻할 수 있다. 3語 발화로 된 Susan sweater on. Mommy sweater on. 이 흔히 S→N+N+particle 로 공식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의미가 Susan has her sweater on. 후자가 Mommy, put my sweater on me.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용을 적절히 밝힐 수는 없으며 극히 皮相의인 記述에 불과한 것이다. Bloom(1970)은 N+N 결합이 5개의 구조, 즉 conjunction, attribution, subject-object, genitive, locative 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語類의 결합관계에 근거하는 P+O 식의 문법 분석이 表層구조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는 인식(cognition)의 발달에 따라서 우선 상황구조(situational context)를 파악하고 한정된 어휘와 문법규칙을 토대로 하여 상황에 의존하는 의사전달을 시도하게 됨으로 表層의 표현 형태는 문법적이 아니나 그가 시도하는 의미구조는 복잡한 것이다. 유아의 발화는 成人문법의 규범에 비추어볼 때에 逸脫된 것이거나 하나 장면적 특성(contextual features)과 불완전한 發語의 共起的 관계로 하여 의도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유아의 표현은 정확한 문법의 前段階로서 발생하는 상황에 적절한 문장(situationally appropriate sentences)인 것이다.

Bloom(1973)에 의하면 유아는 'here and now' 즉 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만을 표현하게 되고 특히 一語文 단계에 있어서는 장면의 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한다 :

It has often been pointed out that children's early utterances are very much tied to the context and behavior in the speech events in which they occur....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children are dependent on the support of the situation for comprehension in much the same way (p. 56).

요컨대 한정된 언어상황에서 그 상황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는 극히 불완전하고 단순한 발화 일지라도 서로 의사전달이 가능한 것은 상황의 잉여성(redundancy)에 도움을 받는 까닭이다.

언어발달의 초기에 있어서는 서술이 위주인 보고문(reportatives) 보다는 화자와 상대방 간에 작용하는 요구, 명령, 부정, 의문 내용으로 되는 作用文(performatives)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고, 따라서 대화 형식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발화에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자발적

반복연습이 다르게 되고 창조적 대화의 전개장면이 빈번히 목격된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장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表現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있어야 비로소 표현형식이 추구되는 것이 언어활동의 기본원리인 까닭이다. 단어, 문법, 번역 등의 형식에 중점을 두어오고 있는 종래의 지적훈련으로서의 영어교육 방법에서는 창조적 언어훈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어의 창조적 활동은 단지 언어의 형식에서 구할 것이 아니고 표현의미의 내용에서, 즉 인간의 본질적인 표현욕구의 창조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유아표현은 전치사나 관사 등 기능어를 생략하는 소위 電報文(telegraphic sentences)적 특징이 있고 Brown & Bellugi(1964)에 의하면 유아가 成人의 발화를 모방할 때에 명사, 동사 등의 內容語(content word) 만을 선택하여 선택적 모방(selective imitation)을 하게되는 것은 심리적, 생리적 제한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때에 語順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구법문에 대한 體系的단축(systematic reduction)을 행하고 있는 증거이다. 반면에 母親이 유아의 "Eve lunch"라는 二語文에 접할 때에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Eve has had lunch." "Eve is having lunch." "Eve will have lunch." 등으로 展開해서 해석하게 된다. 文 기본구조의 습득에 있어서 內容語가 먼저 익혀지고 점차로 기능어로 발전되는 절차는 發展的 細分化(progressive differentiations)의 현상이다. 그리고 기능어의 발달에 있어서는 屈折語尾가 전치사에 先行하여 나타남을 Slobin(1971)은 지적하고 있다.

다음에 Kilma & Bellugi(1966)는 유아의 否定발달단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1	2	3
No touch	That no fish school.	I am not a doctor.
No write this	There no squirrels	I don't want cover on it.
No play that	He no bite you	Paul didn't laugh.
Not a teddy bear	I no want envelope	That was not me.

이 각 단계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S \rightarrow \left\{ \begin{matrix} \text{no} \\ \text{not} \end{matrix} \right\} + \left\{ \begin{matrix} \text{NP} \\ \text{VP} \end{matrix} \right\}$ (2) $S \rightarrow \left\{ \begin{matrix} \text{no} \\ \text{not} \end{matrix} \right\} \text{ predicate}$ (3) $S \rightarrow \text{Nominal} + \text{Anx} + \text{predicate}$.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유아의 언어발달은 成人 언어의 문법이 아니고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조직적이고 독자적인 발달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언어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誤用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成人文法

으로 이르는 일종의 그의 中間言語이며 이것은 檢證을 거쳐서 文法규범으로 발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ellugi(1971)는 다음과 같은 의문문 발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What shall we shall have?

Why was I did break it?

What we will shall have?

Adult: Adam, say what I say: "where can he put them?"

Adam: Where he can put them?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조동사의 중복, 조동사의 倒置규칙의 미완성 등은 運用의 限界(performance limit) 때문에 오는 誤用형태로 설명된다. 유아는 우선 의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표현형식을 점차로 습득하게 되는 데 단시간에 그 습득량이 과중하면 運用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므로 成人의 교정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Bellugi는 발전적인 유아 언어체계가 자율체계 (autonomous system)임을 강조한다 :

We find in general that the order of emergence of certain types of structures is remarkably similar across children who have heard different sets of sentences as input. We find, moreover, that the same types of "immature" forms or transient hypotheses occur across children during periods of the language-learning process, the children's sentences are not directly modelled on the speech the children hear, at least in the data we collected. They occur rather consistently over a period of time, and are subject to change, as the child's system changes. Thus, the children seem to develop similar autonomous system, independent in certain ways from the language of the adult community (p. 115).

이와 같은 유아언어에 있어서 否定이나 의문표현 발달경향이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어떤 시사를 주는 점은 없을까? 生成文法이론에 있어서도 be 동사, 전치사, 관사 등은 변형규칙에 의하여 도입되는 것이며 基底구조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규정되고 특수적인 것은 變形에 의하여 도입됨이 원칙이니 우리의 영어학습에도 이런 원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FL로서의 영어학습에 있어서 역시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誤用없는 완전한 표현을 기대함은 무리일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표현욕을 조장하고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는 다소의 발전적 誤用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관대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I no want. Where he went? Why you smiling? 등

의 中間언어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誤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침묵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誤用처리를 하느니 보다는 誤用的 정도 즉 어느 정도 영어다운 표현이나 그렇지 않으나를 등급지어서 진단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Richards(1971)도 NL 영어학습자와 FL 영어학습자가 범하는 誤用 사이에는 공통점을 인정하고 誤用的 발전적 효과성을 말하고 있다 :

...interpretation of erro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long the lines of errors in first language learning suggests that second language errors are not, by nature, different from those made by children learning English as a mother tongue, hence they should not be of undue concern to language teachers.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하듯이 兩者에 있어서 학습에 참여하는 심리적 과정은 유사성이 많은 것이라면 前述한 유아의 부정문, 의문문 등의 발달과정을 FL 영어학습에서도 인정하고 활용해서 좋을 것이다. 단번학습에서 완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原型(prototype)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細分化하는 학습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의 언어습득은 주위에서 접하는 언어자료를 독자적인 과정을 통하여 체계화해가는 결과이다.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가설적인 언어체계에서 출발하여 原語人 규범에 점진적으로 접근해간다는 것이 발달언어 심리학적 견해이다. 그렇다면 영어 학습자 個々인의 誤用을 점검하여 그에 상응한 지도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統辭的 成熟度(syntactic maturity)의 測定기준으로서 複文變形의 적용에 의한 從屬文化(subordination) 능력의 발달정도를 들 수 있다. Slobin(1971)의 再生테스트(reproduction test)에 의하면 Mozart who cried came to my party. 를 듣고 2년 4개월 된 한 어린이는 Mozart cried and he came to my party. 로 再生한 예가 보고되어 있다. 즉 이 어린이는 關係詞節을 이해할 능력은 있으나 이것을 만들어 낼 능력은 아직 없으므로 統辭的으로 下位구문에 속하는 重文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Hunt(1966)의 小學校 4학년생 작문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

The jewel was in the drawer. It was red.

I have a new bicycle. I like to ride it.

One colt was trembling. It was lying down on the hay.

즉 미국의 유치원, 小학교, 中학교 별로 關係詞에 의한 從屬文化의 사용능력을 조사한 Hunt는 小학교 4년생 이전에는 關係節의 사용이 극히 드물고 학

년이 올라가면서 그 사용빈도가 증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關係節化에 이어서 形容詞變形이나 省略變形이 나타나는 것이 構文발전의 순서인 것을 Hunt는 관찰하고 있으니 The jewel was in the drawer. It was red→The jewel which was red was in the drawer→The red jewel was in the drawer (또는 The jewel in the drawer was red). 등의 발달순서이다.

두 개의 文에 있어서 그 한 쪽이 다른 쪽으로 embedding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2개의 유형이 있다.

(1) I know the boy *who is sick*.

(2) The boy *who was sick* is back at school.

Menyuk(1969)에 의하면 (1)의 경우 I know the boy *and he* (⇒who) is sick.와 같이 the boy에 who is sick를 附加할 뿐이므로 일종의 접속(conjoining)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조작적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이것이 쉽게 습득된다고 생각한다. 이어 반하여 (2)의 경우는 The boy is back at school and he (⇒who)와 같이 되어 置換(permutation) 變形과정이므로 認知的(cognitive) 조작을 요하게 되므로 그 발달도 시간을 끌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不定詞補文(infinitive complement)이나 分詞補文에서도 엿보이는 것으로서 I like the boy *singing over there*. 보다 The boy *sleeping near the rock* is my brother.가 더 어려우며 I need to do *that*. 구문이 To do that is wrong. 구문에 선행하여 발달된다는 보고이다.

Chomsky, C(1969)는 不定詞補文구조인 다음의 두 구문을 분석하고 있다 :

(a) John is eager to see.

(b) John is easy to see.

(a)의 의미상 주어는 John이고 (b)에서는 그렇지 않다. 幼兒는 (a)와 같이 표면구조에서 이해되는 구조관계를 먼저 습득하고 (b)와 같은 복잡한 深層구조의 습득은 늦어지고 따라서 (a)의 구조관계를 (b)로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a), (b)를 같은 구문으로 흔히 혼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表面구조에서 구조관계를 해석하게 되는 까닭에 動詞앞의 名詞는 주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즉 어린이는 명사+동사+(명사)=S+V+(O)라는 식으로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John told Bill to go. (N₁+V₁-N₂+to+V₂) 구문에 있어서 V₂의 주어는 N₂라고 인지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Mary is kissed by John.에서 Mary가 주어이며 John이 kissed의 목적어로 인지될 수 있다. 즉 Rosenbaum의 最短距離의 原理(Minimal Distance Principle)를 균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John promised Bill to go.

에 있어서 go의 의미상의 주어는 Bill이 아닌 John이므로 최단거리 원리는 적용될 수 없다. 不定詞補文 John told Bill to go. 나 John promised Bill to go.에 있어서 양자가 함께 $N_1 + V_1 + N_2 + to + V_2$ 구조이므로 그 表面구조면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다. John promised Bill to go.의 도입에 선행하여 John promised Bill that John would go. 도입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구조관계가 분명한 名詞節 補文표현이 의미구조에 더 가까우며 구조관계가 中和(neutralize)되기 쉬운 不定詞구문은 表層구문에서 그 구조관계 이해가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학습순서로서 名詞節補文을 동시에 제시하여 그 구조관계를 밝히면서 不定詞補文을 다루면 좋을 것이다. 나아가서 動詞의 유형별로 不定詞補文형(want, beg, ask 등), that 補文형(admit, declare, regret 등), 兩用형(find, believe, know 등)의 구별을 확인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Fodor & Garrett(1974)도 동사의 補文허용의 여부 또는 어떤 형태의 補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文章이해의 難易度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로 slap, hit 등과 같이 목적어로 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는 see, know 등의 동사보다 학습이 어려우며 like와 같은 兩用의 동사는 그 곤란도가 더 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사구형과 文 이해도의 관계는 실험언어 심리학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언어습득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3세 아동의 표현에서 ※ I want me to go.가 점출된다고 하는 데 이것은 I want (you, he, her) to go.라는 일반형이 습득되고 同一名詞 생략이라는 특수한 규칙조작이 후에 습득된다는 증거이다. 즉 일정한 中間구조가 언어발달의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단순히 文生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발적이 아닌 체계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린이의 NL 영어학습시에 흔히 나타나는 다음 예를 보자. (a) It's for to eat. (b) You see it what's happening. (c) I dream about I got new toys. (a)에서는 補文표식변형, (b)에서는 it와 what's happening의 置換변형, (c)에서는 get의 명사화가 가해지지 않은 中間구조의 결과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Foder & Garret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Misproductions are cases where either the child has not learned the late rules required to complete a derivation or he knows the rules but somehow fails to employ them. In either case, the assumption is that the process of grammatical derivation is psychologically real(p. 483).

일반적으로 학습의 중간구조에서 나타나는 誤用을 체계적이고, NL 영어습

특자나 FL 영어학습자의 誤用에는 相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많은 誤用은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에서 결과되는 中間구조인 것이다. 변형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 것이 어려움고 어느 것이 비교적 용이한가 하는 것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Menyuk(1969)는 영어습득시의 네 기본변형을 설정하고 附加, 削除, 代入, 置換의 順으로 習得된다고 말하고 있다:

To generate the sentence types (declarative, negative, imperative and question) at an early age, the child uses operations which do not, initially, disturb the underlying sentence. At a late stage of development, when the child is now dealing with embeddings of the whole sentence, the same trend is observed. Again, his initial move is to add sentences to other sentences before disturbing the Noun Phrase—Verb Phrase relationship of underlying strings. *He, therefore, adds before he deletes and deletes before he permutes in the generation of these sentences* (p. 107).

V. 학습자 언어체계

NL 습득에 있어서나 FL 학습에 있어서 誤用的 발생은 빈번하다. 언어란 엄격한 규칙에 지배되는 체계인 까닭에, 학습자는 그가 접하는 언어자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구축해 나아가는 단계적 미완성의 과정에서 誤用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FL과 NL 학습과정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의 규명에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여러 다른 모국어를 배경으로 하는 영어학습자의 학습자료를 연구 분석한 Richards(1971)는 검출된 誤用的 대부분이 모국어의 영향때문이 아닌 발전적(developmental)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NL/FL 학습이 유사한 학습과정과 정을 나타냄을 시사하는 것이다. Selinker(1972)는 FL 학습자가 한정되어 접하게 되는 언어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사전달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는 임시적인 언어체계를 中間言語(interlanguage)라 칭하고 있다. 이 중간언어體系는 학습자의 NL體系나 목표어의 그것과도 다른 독특한 체계이며 목표어 原語人의 규범에서 볼 때에는 誤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때의 誤用은 偶發의이거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되풀이되는 규칙적인 체계이다. Selinker의 중간언어 가설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이론이 있었으나 Nemser(1971)의 近似體系(approximate system), Corder(1971)의 個人特有方言(idiosyncratic dialects) 등이 그것이다. 중간언어, 近似體系, 個人特

有方言의 공통된 특징은 학습정도의 발전에 正比例하여 목표어 體系方向으로 발전할 수 있는 一時的인 體系인 것이다.

Newser의 近似體系에 대한 언급을 인용한다 :

An approximative system is the deviant linguistic system actually employed by the learner attempting to utilize the target language. Such approximative systems vary in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proficiency level; variation is also introduced by learning experience...communication function, personal learning characteristics, etc... Our assumption is threefold: (1) Learner speech at a given time is the patterned product of a linguistic system, *La*, distinct from *LS* and *LT* and internally structured. (2) *La*'s at successive stages of learning form an evolving series, *La*...*n* the earliest occurring when a learner first attempts to use *LT*, the most advanced at the closest approach of *La* to *LT*... (3) In a given contact situation, the *La*'s of learners at the same stage or proficiency roughly coincide, with maior variations ascribable to differences in learning experience p. 116).

즉 Newser의 *La*는 학습자가 의사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목표어의 임시체제이며 학습자의 학습정도, 학습경험 등에 相應하여 여러 變種으로 나타나지만 이것 自體가 一貫된 體系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 자연어와 같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Newser의 近似體系나 Corder의 個人特有方言은 過渡언어능력을 指稱하고 있는 반면 Selinker의 중간언어개념은 좀 더 固定的인 化石化(fossilization) 개념을 내포한다. 즉 학습자의 중간언어가 一定한 수준에 이르면 固定되어서 학습자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는 限界點에 이르는 현상이다. 化石化的 원인은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심리적 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극소수의 천재적 학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의 文法의 일정한 단계에서 化石化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二重 언어(bilingual) 사회에 있어서는 두 개의 언어가 빈번하게 교차되고 혼용되므로 학습자는 중간언어 규범을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언어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Selinker의 化石化를 유발하는 細部方略 즉 전달방략, 학습방략, 과잉일반화 등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拙稿 “中間言語 假說” 『영어교육』 24호, pp. 1~19참조).

이중언어사회의 언어학습자에서 검출되는 중간언어의 化石化현상의 정도를 기술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목표어 규범으로의 진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언어의 전반적인 體系는 상당히 장기간 존속된다고 Whinnon(1971)은 지적한다.

Nevertheless, the system as a whole, however ephemeral in given individuals, and however broad a series of spectra it encompassed, was fairly clearly *predictable*, and was continually renewed in recognizable form from year to year and from generation of immigrant to generation of immigrant(p. 98).

VI. 誤用的 처리문제

여러 다른 모국어 배경을 갖는 영어학습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did he comed, What you are doing, he coming from Israel, make him to do it, married with her 등의 誤用(Richards, 1971)은 학습의 일정단계에서의 학습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발전적 표현인 것이며 이런 현상은 유아의 NL 학습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런 誤用的 처리에 있어서 유아의 NL 학습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대하지만, FL 학습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체계적인 誤用으로부터 우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양태는 다양한 것인 데 이것들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태도는 再考를 요한다. 어느 誤用은 看過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며 어느 것은 看過할 것인지를 구별처리할 필요가 있다. Burt(1975)는 完全誤用과 局部的誤用을 구별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完全誤用이라 함은 문장구조 전체에 관련되는 규칙위반을 말하며 어순, 접속사의 탈락, 접속사의 오용 등이고 局部的 誤用이란 특정한 구성요소의 誤用 즉 동사나 명사의 굴절 변화, 관사, 조동사 등의 誤用을 말한다.

She German speak as well.에서 목적어의 위치 잘못은 完全한 誤用이며 -s의 탈락 현상은 국부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完全한 誤用은 중요한 것이므로 시정을 요하나 局部的인 誤用은 그 점차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관대히 처리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誤用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기피하는 결과보다는 局部的인 誤用을 中間구조로 하여 적극적인 표현유구의 충족이 바람직하고 학습에 더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Hendrickson에 의하면 誤用に 더 민감한 成人의 경우에 있어서 그 訂正은 文 규칙의 적용범위나 단어의 의미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낱말이 지적하여 訂正하는 방법은 학습자에게 當感감과 자신감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원활한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訂正 대신으로 Corder(1967)가 제시한 *discovery approach*가 효

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discovery learning의 실시방법 문제이다. Hendrickson은 이에 대하여 최소한 4개의 학습자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즉 (1) 학습자의 학습목표요인, (2) 학습자 自身の 訂正率과 관계가 있고 학습수준 향상에 따라서 指示量이 減小되는 영어능력요인, (3) 訂正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誤用的 類型과 그 빈도요인(빈도가 높은 誤用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4) 誤用訂正에 임하는 학습자의 태도요인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4)이다. FL의 학습의 목이 학습달성의 큰 요인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는 자발적인 표현을 시도하게 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까닭이다. 誤用은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학습자가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創出하는 지도가 요망된다. 자기표현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支援的인 feedback을 주고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내용면을 重視하는 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또 前述한 우선 순위에 따른 訂正은 학습자의 자신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Hendrickson이 英作文 지도에서 실제로 채용한 방법은 간접 訂正과 직접 訂正을 混用하는 discovery approach로써 그 訂正방법과 留意點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간접정정의 방법은 이러하다: (1) 천자의 잘못을 下線으로 표시하고 (2) 단어의 誤用을 ○으로 표시하며 (3) 缺如된 단어자리를 △로 표시함 (4) 句나 文 구조의 착오를 ?로 지적함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방법은 誤用的 存在나 그 위치에 관심을 갖게 하여 再檢討을 촉구하고 사전, 教材를 이용하여 自發的 訂正이 可能하다고 생각될 때의 提示방법이다. 반면에 직접 訂正의 방법으로는: (1) 단어의 誤用부분에 下線표시를 하고 助言을 첨가함 (2) 오용된 위치의 단어를 []로 지적하고 옳은 위치를 /로 표시함 (3) 불필요한 단어를 /로 삭제함 (4) 語句의 誤用에는 정확한 구문을 제시함 등을 원칙으로 하고 誤用的 지적과 동시에 정정방법과 助言을 提示하는 등등이다. 여기에서는 前者의 경우보다 지시가 더 세밀하나 반면에 자발적정정율은 저하시키는 약점이 있다.

이와 같은 兩面方策의 시행성과를 실험해 본 결과 混用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Hendrickson은 지적하고 있다. 그 混用度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자 자신이 誤用을 해결하는 自發的發見의 기회를 주는 데에 있다.

集中정정의 방법은 적합치 못하며 集中훈련은 정확한 반응을 強化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여 誤用을 除去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George(1972)는 지적하고 있다: "It is not so much repetition that results in learning as repet-

ition of effort" (p. 64). 그리고 誤用은 학습실패의 징조로 볼 것이 아니고 학습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FL의 학습方略 및 학습자의 中間文法체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誤用은 염려할 현상이 아니며 그것은 학습자의 발전단계의 관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를 도울 수 있는 데 공헌할 것이다. James(1970)의 다음 말을 引用하여 이 章을 맺음한다 :

The learner of any L2 has a propensity to construct for himself this interlingua, an act of linguistic creativity so natural that it would be unrealistic to expect learners to circumvent it and proceed directly from his L1 to the native speaker's version of the L2. A further reason for allowing the learner to construct the interlingua is that it is immediately usable by him in the context in which he is learning; his classmates have the L1 in common so will converge in tacit agreement on the form of the interlingua. With this they will be able to communicate while they are learning, while the conventional approach, which proscribes the interlingua as a "corpus of error" either stifles the learner's communication drives altogether, or requires that the linguistically mature student becomes as a little child, practicing perfectly well-formed native-speaker's sentences, which are, however, often idealized and usually trivial. Accepting the interlingua, like accepting a child's non-standard speech, avoids the necessity to halt the communication process for the sake of the learning process.

VII. 결 론

近年에 이르러 誤用分析의 연구결과로 幼兒의 NL 습득과 成人의 FL 학습과정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유아의 NL 습득과정은 모방적인 과정인 동시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임이 밝혀지고 있다. 능동적이라 함은 유아가 언어자료에 접하면 그것을 단지 수용하는 것이 아닌 언어 자료를 나름대로 처리해 나아간다는 뜻이며, 창조적이라함은 그가 듣지도 못한 구문을 創出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유아표현으로부터 成人 언어능력에 이르는 각 단계의 독특한 발전적 언어체계를 연구하게 된다. 유아는 언어발달의 각 단계에서 구문에 대한 一連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시험하여 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각 단계의 문법이 그의 中間文法이 되는 것이다.

成人의 FL 학습과정에 있어서도 유아의 NL 습득시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誤用이 검출되는 사실이 보고 되어 왔다. 즉 FL 학습자도 NL 습득자와 비슷하게 언어학습의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규칙을 구축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FL 학습도 NL 학습과 같이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특성이 있는 발달 과정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습자의 단계적인 中間文法 즉 誤用을 수집하여 분석연구함으로써 외국어학습의 본질적 원칙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의 中間文法의 output로 나타나는 誤用분석의 자료는 교사나 학습자 양자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에 誤用은 중요한 것이니 誤用 各 단계별로 시행착오에 의하여 그의 假說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 독창적인 학습방책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誤用은 학습자의 발전적 능력의 표시이며 필요한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 학습자의 誤用은 학습진전의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中間文法이 목표어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誤用자료는 연구자에게 언어습득의 과정 및 그 학습方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영어학습에 있어서 誤用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ibliography

- Bellugi, U. 1971. "Simplification in Child Language," in Huxley, R. & Ingram E. *Language Acquisition: Models and Methods*. Academic Press, 95—116.
- Bloom, L. 1970. *Language Development*. The MIT Press, 63—67.
-1973. *One Word at a Time*. Mouton.
- Braine, D.S. 1963. "The Ontogeny of English Phrase Structure; The First Phase," *Language*, Vol. 39, 1—13.
- Brown, R. & Bellugi, U. 1964. "Three Processes in the Child's Language Acquisition of Syntax," in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4, No. 2, 133—151.
- Burt, M.K.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Vol. 9, 56.
- Chomsky, C. 1969.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from 5 to 10*. MIT Press.
- Corder, S.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5, 161—169.
-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RAL*, 9, 147—159.
- Flege, J.M. "Phonetic Approxim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Vol. 30, No. 1, 119.
- Fodor, B. & Garrett. 1974. *The Psychology of Language*. McGraw-Hill.

- Fries, C.C. 1945.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eorge, H.V. 1972. *Common Errors in Language Learning: Insights from English*. Newbury House.
- Hendrickson, J.M. 1980. "The Treatment of Errors in Written Work," *MLJ*, Vol. 64, No. 2.
- Hunt, K.W. 1966. "Recent Measures in Syntactic Development," in Lester, M. ed, *Readings in Applied Transformational Grammar*. Holt, Rinehart and Winston.
- Jacobson, R. 1968. *Child Language, Aphasia and Phonological Universals*. Mouton.
-1971. "The Sound Laws of Child Language and Their Place in General Phonology," in Adon & Leopold eds, *Child Language: A Book of Reading*. Prentice-Hall.
- James, C. 1970. *Foreign Language Learning by Dialect Expansion*.
- Jespersen, O. 1922.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p. 136.
- Kilma, E. & Bellugi, U. 1966. "Syntactic Regularities in the Speech of Children," in Lyons, J. & Wales, R. eds, *Psycholinguistics Papers*. Edinburgh University Press, 183—220.
- Lieberman, P. 1968. *Intonation, Perception, and Language*. MIT Press, p. 45.
- McNeil, D. 1966.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Smith &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MIT Press, 15—84
- Menyuk, P. 1969. *Sentences Children Use*. MIT Press, p. 54.
-1971. *Th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Prentice-Hall.
- Nemser W. 1971.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Vol. 9, 115—124.
- Richards, J.C. 1971.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Language Sciences*, No. 17.
-1971.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The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25.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 10: 209—231.
- Slobin, D. 1971.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Dingwall, W. 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298—411.
- Smith, N. 1973. *The Acquisition of Phonology; A Case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non, K. 1971. "Linguistic Hybridization and the Special Case of Pidgins and Creoles," in Dell Hymes, ed,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of Languages*. Cambridge.

(Abstract)

Errors in English Learning Process

Jin Hyo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On the basis of recent studies, it seems that child language acquisition is not merely imitative but is a creative and active process. It is active in the sense that the child processes language data; he does not merely imitate it. It is creative in the sense that on the basis of his already acquired structure, the child is able to formulate meaningful statements which he has never heard before.

Many of the errors adult learners of the English language seem to be similar to the errors children make. There is evidence that the English language learner, like children, formulates his own rules as part of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This means that adult English language learning is both systematic and creative. If so, we can hope to learn more about English learning by carefully studying the learners successive grammars, which are his interlanguag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kinds of errors students make and it is sometimes more effective to tolerate errors than to correct them each time they appear because some errors are normal to the learning process and are developmental. Since the learner is actively involved in learning process, the teacher who supplies the correct form indirectly will have better results than the teacher who supplies it directly.